



2014년이 저물고 있다. 조선 미디어 그룹 임직원들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의 2015년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원코리아 뉴라시아 자전거 평화 원정대원들이 지난 10월 몽골 고비사막에서 이동하던 중 저물어가는 태양을 보는 모습.

복지기금 100억 추가출연... 개인연금은 두 배로 늘린다

기금 규모 600억원 시대로
연금지원 월 5만→10만원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직업 안정성 높여갈 것”

회사는 12월 30일 사내복지기금에 100억원을 추가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연금지원액을 100%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조선일보 복지기금 규모는 620억 여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또 지금까지 ‘복지기금 월 5만원+개인불입금 5만원(이

상)’의 매칭펀드 형태로 운영돼 온 개인연금의 경우 복지기금 지원액이 10만원으로 늘어 나게 됐다. 이에따라 직원들은 내년부터 10만원(이상)을 불입해 보다 든든한 개인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방상훈 사장이 2013년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밝힌 ‘직업 안정성(job security)’의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회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방 사장은 2013년 시무식에서 “1등 신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직업 안정성(job se-

curity)’이며, 1등 인재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신문업계 최초로 ‘조선일보 개인연금’을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는 이를 위해 2012년 연말 1차로 55억원의 기금을 출연했고, 올해 100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것이다. 회사는 향후 추가 출연을 통해 개인연금 규모를 키워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미래를 풍요롭게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개인연금을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이은 노후 대비의 세번째 축으로 보

고 있다.

개인연금은 회사와 사원이 매달 매칭펀드 방식으로 최장 20년간 적립한 뒤, 직원들이 노후에 매달 적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복지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원 개인도 최소 그 액수 만큼을 불입해야 한다. 예를들어 복지기금으로부터 월10만원을 지원받으려면, 사원 본인도 월10만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복지기금 지원금은 상한액이 10만원이기 때

에 사원이 20만원을 낸다고 복지기금이 20만원을 매칭해 주는 것은 아니다. 사원이 원할 경우 자기불입금을 현행대로 5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재 본사 개인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삼성화재와 계약을 새로 맺을 필요는 없다.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는 ‘급여공제 동의서’를 총무팀에 제출하면 된다.

총무팀은 이를 위해 1월 중 급여공제 동의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정화·총무팀

올해 조선닷컴 클릭 Top10 기사 중 4건이 ‘세월호’

1위는 ‘학생부에 적힌...’
SNS 통한 추천·공유
조선닷컴 유입 증가로

2014년 한 해 조선닷컴(www.chosun.com) 독자들이 가장 주목한 키워드는 ‘세월호’였다. 조선닷컴 게재 기사 중 PV(페이지뷰) 상위권 기사 톱10(2014년 12월 22일 기준) 안에는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 유족 관련 기사가 총 4건이나 포함됐다.

세월호 기사 중 ‘左派 총집결한 원탁회의가 서울 집회 주최’ (5월12일자) 기사는 PV 31만2천건으로 조선닷컴 기사 전체 중 2위였다. 주말동안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촛불집회에 시민뿐 아니라 ‘국정원 타도’를 기치로 내건 좌파·진보단체가 총결집했다는 내용이다. 3위를 차지한 ‘진도 해상서 462

명 탄 여객선 완전 침몰...4명 사망·283명 생사 미확인’ 기사는 조선닷컴 독자에게 세월호 사고 소식을 처음으로 알렸다. 세월호 사고 직후 조선닷컴에 노출되면서 PV 29만5086건을 기록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쟁점일 당시 발생한 ‘대리기사 폭행사건’의 주목도도 높았다. ‘유가족 음주 후 대리기사 폭행 혐의...경찰 수사엔 묵비권 행사’ (9월17일자) 기사는 PV 21만2322건으로 집계돼 10위를 기록했다.

‘대리기사 폭행’ 한달 전 불거진 ‘유민아빠’ 논란도 SNS를 중심으로 큰 이슈가 됐다. PV 23만 5993건을 기록해 7위에 랭크된 ‘유민 外家, “저 사람 지금 이러는 거 이해 안 돼”’ (8월 25일자) 기사는 광화문광장 단식농성을 주도한 ‘유민아빠’ 김영오씨를 둘러싼 논

2014 조선닷컴 페이지뷰 순위 Top 10

순위	제목	PV
1	학생부에 적힌 한 줄, 52대 1 大入 경쟁 뚫다	78만2362
2	세월호 참사 / 주말 곳곳서 집회	31만21
3	진도 해상서 462명 탄 여객선 침몰	29만5086
4	시디니 인질극 탈출한 두 여성에 세계가 박수	26만511
5	北 김경희, 남편 장성택 처형 닷새 후 자살說	24만1634
6	TV조선/ 58억 쟁권 스타 공무원의 ‘화려한 이중생활’	24만91
7	유민 外家 “저 사람 지금 이러는 거 이해안돼”	23만5993
8	과묵한 황병서, 자신감 넘친 최룡해, 발언 많이 한 김양건	23만4010
9	속보/임병장 자살 시도...왼쪽 가슴에 스스로 총격	22만9191
10	세월호 유가족 음주 후 대리기사 폭행	21만2322

란과 이에 대한 김씨의 해명을 다뤘다. 김씨의 ‘아빠자격’ 논란이 SNS를 통해 확산되던 시점이라, 해당 기사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서 330여회 공유되기도 했다.

이처럼 SNS를 통한 추천이나 공유가 조선닷컴 유입 증가에 기여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학생부에 적힌 한 줄, 52대 1 大入 경쟁 뚫다’ (11월18일자)

기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되면서 PV 78만2362건으로 집계돼 올 한해 PV 1위가 됐다. 특히 대입 전형기간 동안 조선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카드뉴스’ 콘텐츠로 소개되면서 호감을 나타내는 ‘좋아요’ 1만3601개를 기록했고, 124회 공유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이정원·디지털뉴스부

2015년 복지포인트 1월 2일부터 사용 가능

2015년 복지포인트는 1월 2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사외에서도 접속 가능하다. 만약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복지카드를 사용하면 개인 통장에서 금액이 빠져나가므로 유의해야 한다.

복지카드를 할부 결제에 쓰면 포인트 차감이 되지 않고 개인 통장에서 대금이 빠져나가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부여된 포인트를 초과해서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인 통장에서 대금이 빠져 나간다. 이정화·총무팀

조선일보 종무식
31일 오전 11시 30분
사원식당

조선일보 시무식
1월 2일 오전 10시 30분
편집동 미술관